

장성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장성 필암서원이 유네스코 측으로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 인증서를 받았다.

5일 장성군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한국의 서원 등재 기념식'에 참가해 인증서를 수령했다고 전했다.

전달식은 유두석 장성군수와 필암서원 김인수 도유사가 함께 했으며, 장성군과 필암서원 관계자 10여 명이 배석했다.

1590년 건립된 장성 필암서원(사적 제242호)은 평지에 세워진 한국 서원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국난과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를 제향(나라에서 지내는 제사)하는 호남 최대의 사액서원(국가공인서원)이면서, 문화재로 지정된 문서 및 문적, 목판 등 중요한 자료들을 다수 보존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현재 필암서원은 중앙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정령교육'의 필수코스다.

앞서 유네스코는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장성군의 필암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9개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고 발표했다.

장성군이 5일 등재 기념식에서 받은 인증서를 기준으로 하면, 정확한 등재일은 2019년 7월 10일이다.

장성군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필암서원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원 주변의 편의시설 정비와 전담 해설사 상시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안내소 설치도 검토 중이다.



장성 필암서원 전경.

/장성군 제공

'한국의 서원 등재 기념식'서 유네스코 측 인증서 수령

유두석 군수 "문물여장성의 전통 더욱 빛나는 계기"

이 밖에 서원의 전반적인 관리는 향후 수립되는 문화재청의 계획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 필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실시

는 인증서를 받은 뜻깊은 날"이라며 "문물여장성의 전통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며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세계적인 문화재인 장성 필암서원을 물려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성=윤규진 기자 jin2001@

화순 '자살 예방의 날'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마당극·뮤지컬·상담 치료 등 추진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다양한 자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에는 화순고인돌전통 시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나?'를 슬로건으로 자살 예방 홍보 활동을 벌였다. 4일에는 나드리복지회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변의 관심과 자살 예방을 주제로 한 마당극 공연을 펼쳤다.

지난 5일과 6일에는 화순농주교와 제일중학교에서 자살 예방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을 했다.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의 실태, 가정 폭력, 외모 지상주의 문제를 무겁지 않게 전달하며 재미와 감동을 주는 공연으로 호응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중·고등학교와 함께하는 등교 캠페인, 자살 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생명 사랑 지킴이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누구나 우울증이 생길 수 있으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우울과 스트레스 검사, 상담으로 우울증을 예방하자"며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화순군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다양한 자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장흥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장터서 '인기 만점'

추석명절 맞아 서울 서대문구청광장서 운영

장흥군(군수 정중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서울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장흥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장흥축협, 남도도립 생협 등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장흥군 특산품인 장흥한우, 표고버섯, 무산김, 꼬시래기 등을 시중 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해 수도권 소비자들

의 호응을 얻었다.

이틀간의 직거래장터에서 모두 4천7백만원의 매출고를 달성했다.

특히 장흥한우는 총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올해는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참여해 소고기삼합, 표고해물파전 등 시식회도 열었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장흥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서울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장흥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나주 '빛가람드들섬프린지 축제' 개최

11일부터 15일, 남평읍 지석천 체육공원 일대에서 진행

나주시 남평읍의 가을 대표 축제인 '제3회 2019 빛가람드들섬프린지 축제'가 오는 추석 명절 연휴인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간 열린다.

새하얀 메밀꽃과 코스모스로 만개한 남평읍 지석천 체육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한 달맞이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는 1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2일 드들섬 가요제, 불꽃놀이, 소원 풍등 날리기 등 강변도시 남평의 가을밤을 낭만으로 물들일 메인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축제 기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광장놀이터를 조성하고, 드들섬과 드들섬너를 주제로 하는 사생대회와 공예, 활쏘기 체험, 전통품바, 난타 등 문화·공연, 다양한 지역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야시장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축제에 앞서 남평읍지역발전협의회는 드들섬 유원지 일대(약 2만 평) 코스모스와 메밀을 식재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이벤트와 더불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선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